

재건축 조합장 인가 놓고 오락가락 행정 논란

서구청, 화정주공 새 조합장 거부했다 2개월만에 인가 결정 국토부 유권해석 뒤 번복... 입주자들 소유권 등기 불편 해소

광주 서구청이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관련해 '이해하지 못할 행정'을 펼치면서 비판의 중심에 섰다.

조합원 총회를 거쳐 선출된 조합장에 대한 인가를 거부했다가 이렇다할 사정 변경도 없는 상황에서 돌연 인가하기로 결정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결정 번복으로 입주민 불편은 해소될 전망이다. 서구청이 주민 반발을 감수하고 공백을 채우기 위해 무리한 행정을 펼친 배경은 여전히 의문이다.

서구는 화정주공재건축조합이 낸 조합 설립변경(조합장 변경) 신청을 인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4월22일 인가거부 결정을 통보한 지 2개월 만에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전임 조합장 해임 이후 선출

된 신임 조합장이 관할 구청의 인가를 받게 돼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다. 잔금과 취득세까지 납부하고도 조합장 부존재로 소유권 등기조차 할 수 없었던 3700여 입주자들의 불편도 조만간 해소될 전망이다.

앞서 서구는 총회를 열 때 전체 조합원 3분의 1 이상 발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합정관을 내세워 지난 4월 신규 집행부 측이 신청한 조합장 변경 인가를 거부했다. 당시 신규 조합 집행부는 5분의 1 이상이 발의하면 총회를 열 수 있다는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으로 반박했고, 서구가 이를 수용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서구는 또 다른 사유를 내세워 조합장 변경 인가를 거부했다. 임원 자격을 규정한 조합정관을 바꾸고 관할 구청의

인가를 받은 뒤 새 집행부를 뽑아야 했는데, 조합 측이 정관 변경 후 구청 인가도 없이 신규 조합장을 선출해 '조합장 변경을 인가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신규 집행부 측은 "관련 판례, 국토교통부 및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를 살펴봐도 임원 선출 방법에 관한 조합 정관 변경은 신고사항일 뿐"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애초 인가 사항으로 판단했던 것이 신고사항으로 확인돼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27일 오전 중 조합장 변경 인가를 내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임 조합 집행부 반발 및 입주민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불편이 예상됐는데도 애초 인가 거부를 고집한 배경에 대해서는 "서구청 자문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임원 선출 방법을 규정한 정관 변경은 신고가 아닌 인가로 파악됐다. 이러한 점을 전임 집행부도 알고 있어 결정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그러던 서구청이 최근 입장을 바꾼 것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조합 측 이의 제기에 따라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임원 선출방법에 관한 정관 변경은 경미한 신고사항일 뿐'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애초 인가 사항으로 판단했던 것이 신고사항으로 확인돼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27일 오전 중 조합장 변경 인가를 내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임 조합 집행부 반발 및 입주민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불편이 예상됐는데도 애초 인가 거부를 고집한 배경에 대해서는 "서구청 자문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임원 선출 방법을 규정한 정관 변경은 신고가 아닌 인가로 파악됐다. 이러한 점을 전임 집행부도 알고 있어 결정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또 안전불감... 하선 차량 돌진 2명 사상

여수 대경도 도선 승객·차량 동시 하선 중 사고

여수의 한 선착장에 정박한 도선(3.7km 이내의 짧은 해상거리에서 사람과 차량,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에서 하선하던 차량이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도선을 이용하는 승객과 차량의 승·하선 시 누가 먼저인지 명확한 지침이 없어 언제든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사고 당시에도 탑승하고 있던 승객과 차량이 혼재돼 하선하던 상황으로 자칫 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26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낮 12시40분께 여수시 대경도경도선착장에 정박한 전남관광유류 소유의 도선 G호(12t)에서 하선 중이던 김모(74)씨의 차가 갑자기 갑자기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G호 램프 부근 갑판에서 하선을 유도하던 갑판장 홍모(57)씨가 차에 깔려 다쳐 27일 새벽 1시 30분께 여수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해경에서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 같다"며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에 따르면 승객 30명과 차량 12대를 싣고 대경도선착장에 입항한 G호는 사고 당시 승객과 차량의 하선을 동시에 진행중이었다. 사고 차량의 방향이 조금만 바뀌어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었다. 부상을 당한 승객도 차량이 옆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큰 화를 면했다.

문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도선을 이용하는 승객과 차량의 승·하선 순서 등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도선은 승·하선시 승객과 차량이 혼재되면서 안전사고 가능성을 키울 수밖에 없다.

차량의 승·하선을 유도하는 선박 갑판 직원들의 위치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승선 갑판장도 G호의 승·하선 장치인 램프와 하선을 대기하던 차량 사이에서 일하던 중이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주말·휴일 사건·사고 브리핑

여학생 40명 성추행 교사 구속

순천경찰은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순천 모 중학교 체육교사 A(54)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학교 체육관에서 신체검사의 하나인 체지방 측정을 하면서 3학년 여학생 40여명의 가슴 등을 손과 팔꿈치로 스치듯 만진 혐의다.

배수로 덮개 상습 절도범 구속

광양경찰은 26일 공원이나 도로 배수로 덮개를 상습적으로 훔쳐 고물상에 판 혐의(상습 절도)로 김모(25)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5월26일부터 지난 21일 까지 광양시 봉강면 일대 도로에서 31차례 걸쳐 배수로 덮개 246개(1230만원 상당)를 훔쳐 100만원을 받고 고철로 되 판 혐의다.

주취 난동에 강도 중국인 영장

광주북부경찰은 26일 술에 취해 이웃 주민에게 흥기를 휘두르고 차량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수 상해)로 중국인 유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께 복귀 풍향동 한 주택에서 소지하고 있던 흥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50)을 다치게 하고, 도주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의 장문을 부수고 현금 15만원을 훔친 혐의다.

패러글라이딩 실종...숨진 채 발견

26일 오후 5시께 영광군 묘량면 장암산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다 실종된 동호회원 A(33)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비상착륙을 시도했다'는 동호회원의 진술을 토대로 갑작스런 난기류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회부)

대령이 3차례 불렀는데 대위가 무시...상관 모욕 '무죄'

○...상관이 3차례 불렀는데도 이를 무시했다며 모욕죄로 기소된 군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

○...26일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영식)에 따르면 상관을 모욕한 혐의(상관모욕)로 기소된 A(36·대위)씨는 지난해 2월 강원도 모 국군병원 군의관실에서 상관인 대령 B(51)씨가 3차례 불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나가버렸다

는 것.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전날 몸이 좋지 않아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고 있다가 상관과 말다툼을 했고, 상관과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고자 밖으로 나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런 행위만으로 상관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저하시켰거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영광주민 반발에...핵폐기물 단기저장시설 용역 중단

한수원 의견수렴 없이 추진

군민대책위 내달 집회 예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충분한 지역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사용후핵연료(고준위 핵폐기물·폐연료봉) 부지 내 단기저장시설 건립을 위한 용역조사에 나섰다. 영광 주민들이 반발하자 중단했다.

영광주민들은 한 달 더 나아가 단기저장시설 건립 반대,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반대,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에 관한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요구하며 7월 중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26일 영광주민들과 한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4월부터 부지 내 단기저장시설 건립을 위한 용역 조사를 추진해오다가 지난 20일 용역 중단했다. 영광주민 반발에 따른 것이다.

용역은 올 7월 총리 주재의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확정되는 사용후핵연료 기본 처리계획에 따라 영광 한빛원전 등 4개 원전 소재지역에 들어설 단기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립을 위한 사전 조사 성격이다. 한빛원전의 경우 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인 수조(물탱크)에 고준위 핵폐기물을 쌓아 왔는데, 오는 2024년 가득 찰 예정이어서 그전에 별도의 보관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

황이다.

애초 올 11월까지 해외사례 수집, 기술 지원 및 기준 확보, 안전성 확보 방안 연구, 원전 부지 내 지질 조사가 수행될 예정이었지만 2개월 만에 주민 반발로 중단됐다.

앞서 영광지역 150여개 시민·사회·환경단체로 구성된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고준위 핵폐기물 부지 타당성 조사 중단 ▲고준위 핵폐기물 단기저장시설 신속 반대 ▲한빛원전 수명연장 반대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관련, 주민 의견 수렴 재실시 ▲정부, 한수원 지역주민 갈등 조정 반대 등을 요구

해왔다.

법군민대책위 관계자는 "영광에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이 건립되면 영구 저장소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민들이 결사 반대하고 있다"며 "28일 지역 의견을 수렴해 정부·한수원에 보낸 뒤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다음달 중으로 3000명 수준의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수원 측은 "다음달 원자력진흥위원회를 통해 처리 계획이 확정되면 어차피 지역주민과의 논의가 필수인데, 해외 사례 검토, 부지 지질 조사 없이 백지 상태에서 어떤 논의가 가능하겠느냐"면서 "주민과의 논의를 위한 사전 조사 성격이지만, 주민 반발이 큰 만큼 일단 조사를 멈추고 추후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SKY in Seoul

초혼	추천회원	재혼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8~45세 시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공무원(5급~9급) 27~42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삼성, 현대, LG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이나운서,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튜어디사,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남 의사, 변호사 32~72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 대기업 간부 36~67세 회사원, 자영업 33~61세 무출산 여성 희망 33~48세 여 VIP 희망 여성 32~45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1세 공무원, 교사 32~54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0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810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GWANGJU HEARING AID CENTER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